

3년간 일개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여성의학과 외래 환자에 대한 임상고찰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 교실
권지명, 박영선, 김동철

ABSTRACT

A Review of Outpatients in Oriental Obstetric & Gynecology Clinic of the Oriental Hospital for 3 Years

Ji-Myung Kwon, Young-Sun Park, Dong-Chul Kim
Dept. of Oriental Obstetric &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Purpose: To show the clinical aspects in outpatients who visited Oriental Obstetric & Gynecology Clinic

Methods: We studied 7141 patients who visited Oriental Obstetric & Gynecology Clinic from 2008 to 2010.

Results:

1. The total patients and the percentage of new patients increased every year.
2. The age distribution showed over 60% in 20~49.
3. The percentage of Oriental Ob&Gy patients decreased with 55% in 2008, 28% in 2009, 29% in 2010.
4. The distribution of oriental diagnosis showed 55.4% in Ob&Gy, 19.2% in musculoskeletal system, 6% digestive system and respiratory system neuropsychiatry in 2008. And 30.6% in musculoskeletal system, 28.5% in Ob&Gy, 10.9% neuropsychiatry in 2009. And 29% in musculoskeletal system, 28.1% in Ob&Gy, 11.1% in heart system in 2010.
5. The most commonly used herbal medicine was Ikgibohyeltang.

Conclusions: We hope these results could be helpful to diagnosis and treatment of oriental Ob&Gy patients.

Key Words: Oriental Obstetric & Gynecology, Outpatients, Oriental Hospital

I. 서 론

부인과학은 여성 건강관리의 특수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과 생식기관에 대한 기능적인 면과 기질적인 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간 생식의 양 뿐만 아니라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영역은 다른 의학 분야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다. 의료관리(medical care)에서 건강관리(health care)로 개념이 변화되면서 부인과 의사로서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¹⁾.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한방부인과에 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 파악한다면 부인과 의사로 적절한 진단과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까지 한방여성외과를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분석은 산후풍²⁾, 불임환자^{3,4)}, 유방암환자⁵⁾, 사상체질의학적 분석⁶⁾이 있었으나, 외래 환자군 전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접하지 못했다. 이에 본 저자는 한방여성외과 외래에서는 어떠한 환자들이 내원하는지를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OO한방병원 한방여성외과 외래 환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에 한방여성외과에 내원한 환자 71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목적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에 한방여성외과에 내원한 환자 7141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고 분석 고찰하였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에 한방여성외과에 내원한 환자수와, 연간 신환수를 조사 하였다.

2) 연간 실환자를 연령별로 정리하였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⁷⁾에 따른 환자의 상병코드를 조사하여 『한방여성외과』⁸⁾을 기준으로 한방여성외과 질환 및 그 외의 질환을 구분하였으며, 비록 『한방여성외과』에 언급된 질환이더라도 임상적으로 타과에서 전문으로 하는 질환은 비한방여성외과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단 2010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어 2010년 상병명은 이전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4) 한방여성외과 영역의 질환별로 실환자수를 조사하였다.

5) 한방여성외과 질환에 대응되는 처방과 치료 기간을 조사하였다.

III. 결 과

1. 환자수

3년간 전체 내원환자수는 7141명으로 신환자수는 2348명이였다. 2008년에는 총환자수가 1476명, 실환자수가 516명, 신환수가 249명이였다. 2009년에는 총환자수가 2738명, 실환자수가 847명, 신환수가 718명이였다. 2010년에는 총환자수가 2927명, 실환자수가 985명, 신환수가 837명이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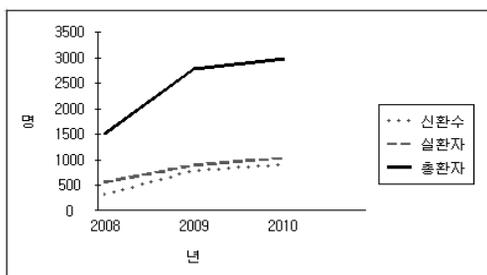


Fig. 1. The Number of Outpatients.

2. 연령별 실환자수 분포

연령별 분포는 2008년에는 10대가 26명(16.7%), 20대가 143명(27.7%), 30대가 182명(35.3%), 40대가 101명(19.6%), 50대가 47명(9.1%), 60대가 9명(1.7%)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10대가 40명(4.8%), 20대가 176명(20.8%), 30대가 218명(25.7%), 40대가 210명(24.8%), 50대가 134명(15.8%), 60대가 47명(5.5%)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0대가 39명(4.0%), 20대가 172명(17.5%), 30대가 254명(25.8%), 40대가 227명(23.0%), 50대가 193명(19.6%), 60대가 65명(6.6%)으로 나타났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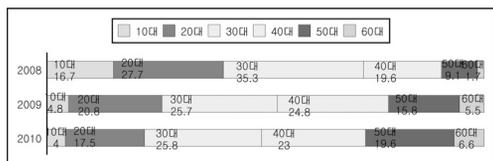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Age Group.

3. 여성질환 환자 및 비여성질환 환자 수 비교

3년간 실환자 2348명 중에서 여성질환은 809명(34%), 비여성질환은 1539명(66%)이었다. 2008년에는 여성질환은 286명(55%), 비여성질환은 231명(45%)이었다. 2009년에는 여성질환은 241명(28%), 비여성질환은 606명(72%)이었다. 2010년에는 여

성질환은 283명(29%), 비여성질환은 702명(71%)이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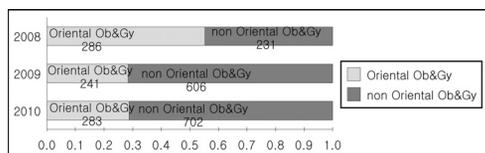


Fig. 3. The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Department.

4. 상병명에 따른 분포

전체 환자의 병명의 빈도에 따르면 2008년에서 부인과질환(55.4%), 운동기 질환(19.2%), 비계질환(6%), 폐계질환(6%)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운동기질환(30.6%), 부인과질환(28.5), 신경정신 질환(10.9%)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운동기질환(29.0%), 부인과질환(28.1%), 심계질환(11.1%), 신경정신질환(10.5%)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여성질환 중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의 비중이 2008년 5.2%, 2009년 10.9%, 2010년 10.5%로 나타났다(Table 1).

연령대 별 다빈도 상병을 각각 살펴보면 10대는 월경통, 월경부조, 무월경, 20대는 산후풍, 월경통, 요통, 30대는 산후풍, 요통, 월경통, 40대는 갱년기 질환, 견항통, 요통, 50대는 갱년기 질환, 견항통, 요통, 60대는 허로, 요통, 비증의 순서로 많았다(Table 2).

여성질환의 병명의 빈도는 월경질환(34.7%), 산후신통(16.4%), 갱년기 증후군(14.5%), 산후허로(9.6%), 유산(7.0%), 징가(5.8%), 대하(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경질환, 산후신통, 갱년기 증후군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65.6%를 차지했다. 월경질환 중에서 주기성골반통(월경곤란증)의 경우 2008년 28례

(9.8%), 2009년 35례(14.5%), 2010년 51례(18.0%)로 나타났고 월경후기5.7%가 5.7%, 월경선기는 2.5%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후군의 환자들이 2008년 9.8%, 2009년 13.3%, 2010년 20.1%로 나타났다. 산후풍의 경우 2008년 34례(11.9%), 2010년 32례(13.3%), 2010년 67례(23.7%)로 나타났다(Table 3).

연령대 별 여성질환의 다빈도 상병을 각각 살펴보면 10대는 월경통, 월경부조, 무월경 20대는 산후풍, 월경통, 유산, 30대는 산후풍, 월경통, 유산, 40대는 갱년기 질환, 자궁근종, 월경과다, 50대는 갱년기 질환, 자궁근종, 대하, 60대는 요실금, 질염, 대하의 순서로 많았다(Table 4).

Table 1. The Number & Rate of Patients according to Oriental Diagnosis

Diagnosis	2008(%)	2009(%)	2010(%)
Liver system disease	7(1.3)	9(1.1)	13(1.3)
Heart system disease	20(3.9)	61(7.2)	109(11.1)
Digestive system disease	31(6.0)	58(6.8)	66(6.7)
Respiratory system disease	31(6.0)	75(8.9)	72(7.3)
Urinary system disease	8(1.6)	16(1.9)	24(2.4)
Skin & ENT system disease	1(0.2)	14(1.7)	10(1.0)
neuropsychiatry disease	27(5.2)	92(10.9)	103(10.5)
musculoskeletal disease	99(19.2)	259(30.6)	286(29.0)
Ob & Gy disease	286(55.4)	241(28.5)	277(28.1)
etc.	6(1.2)	22(2.6)	25(2.5)
total	516	847	985

Table 2.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Age according to Diagnosis

Age Rank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1st	dysmenorrhea	postpartum disease	postpartum disease	menopausal syn.	menopausal syn.	weakness
2nd	Abnormal uterine bleeding	dysmenorrhea	low back pain	neck & shoulder pain	neck & shoulder pain	low back pain
3rd	amenorrhea	low back pain	dysmenorrhea	low back pain	low back pain	numbness

Table 3. The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Oriental Ob & Gy Diagnosis

Oriental Ob & Gy Diagnosis	Sub category	2008	2009	2010	Total (%)
		Number (%)	Number (%)	Number (%)	
Menstrual disease	amenorrhea	5(1.8)	3(1.2)	9(3.2)	17(2.1)
	Abnormal uterine bleeding	25(8.8)	16(6.6)	2(0.7)	43(5.3)
	polymenorrhea	3(1.1)		17(6.0)	20(2.5)
	oligomenorrhea	15(5.3)	12(5.0)	19(6.7)	46(5.7)

	hypomenorrhea	8(2.8)	5(2.0)	13(1.6)
	hypermenorrhea	5(1.8)	6(2.5)	11(1.4)
	metrorrhagia			
	menorrhagia	5(1.8)	8(3.3)	13(1.6)
	intermenstrual bleeding			1(0.4) 1(0.1)
Pelvic pain	dysmenorrhea	28(9.8)	35(14.5)	51(18.0) 114(14.1)
P.M.S	P.M.S			3(1.1) 3(0.4)
Menopause	menopausal syn.	28(9.8)	32(13.3)	57(20.1) 117(14.5)
Infertility		7(2.5)	10(4.1)	6(2.1) 23(2.8)
Pelvic infection	leukorrhea	13(4.6)	17(7.1)	11(3.9) 41(5.1)
Viginal infection	vulvo-vaginal infection	5(1.8)		5(0.6)
Tumor	Myoma	26(9.1)	13(5.4)	7(2.5) 46(5.7)
	Ovarian Tumor			1(0.4) 1(0.1)
Breast disease	spontaneous nipple discharge	1(0.4)		1(0.1)
Obesity				2(0.7) 2(0.2)
Prenatal disease	abdominal pain&hemorrhage	1(0.4)	2(0.8)	3(0.3)
	abortion	14(4.9)	20(8.3)	22(7.8) 56(7.0)
	ectopic pregnancy			
	hyperemesis	6(2.1)	4(1.7)	4(1.4) 14(1.7)
	prenatal edema			2(0.7) 2(0.2)
	abnormal presentation	1(0.4)		1(0.1)
Postpartum disease	respiratory disease	2(0.7)		2(0.2)
	postpartum disease	34(11.9)	32(13.3)	67(23.7) 133(16.4)
	lochia	1(0.4)		1(0.1)
	postpartum weakness	50(17.5)	26(10.8)	2(0.7) 78(9.6)
	postpartum edema	1(0.4)		1(0.1)
	mastitis	1(0.4)		1(0.1)
Total		285(100)	241(100)	283(100) 809(100)

Table 4.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Age according to Ob & Gy Diagnosis

Age Rank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1st	dysmenorrhea	postpartum disease	postpartum disease	menopausal syn.	menopausal syn.	Urinary Incontinence
2nd	Abnormal uterine bleeding	dysmenorrhea	dysmenorrhea	myoma of uterus	myoma of uterus	viginal infection
3rd	amenorrhea	abortion	abortion	hypermenorrhea	leukorrhea	leukorrhea

5. 치료처방

한방여성의학과 환자에게 많이 상용되는 처방은 익기보혈탕이 349회, 귀비온담탕이 245회, 가미온담탕이 193회 순으로

가장 많이 투여되었다(Table 5). 처방을 한 환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8.5%, 40대가 23.0%, 20대가 20.7%로 나타났으며 20대~40대가 72.2%를 차지하였다(Table 6).

Table 5. Distribution of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for Oriental Ob & Gy Patients

Prescription	Frequency(%)
Ikgibohyeol-tang(益氣補血湯)	349(20.9)
Gwibiondam-tang(歸脾溫膽湯)	245(14.7)
Gamiondam-tang(加味溫膽湯)	193(11.5)
Sanhubojung-tang(產後補中湯)	117(7.0)
Sobokchukeo-tang(小腹逐瘀蕩)	80(4.8)
Gamiohjeok-san(加味五積散)	78(4.7)
Onpojongok-tang(溫胞種玉湯)	63(3.8)
Onpoeum(溫胞飲)	56(3.3)
Ikwiseungyang-tang(益胃升陽湯)	43(2.6)
Jagunggeunjong-bang(子宮筋腫方)	38(2.3)
Gongjindan(供辰丹)	37(2.2)
Gamibunsimgieum(加味分心氣飲)	29(1.7)
Hwalhyeoltonggyeong-tang(活血通經湯)	24(1.4)
Hyeonbuyigyeong-tang(玄府理經湯)	21(1.3)
Hyangsaonbi-tang(香砂溫脾湯)	15(0.9)
Sopungyangje-tang(消風痒除湯)	14(0.8)
Gagamseopyoungjeon(加減攝營煎)	14(0.8)
Sanhugungwi-tang(產後芎歸湯)	12(0.7)
Gyulryeongbosaeng-tang(橘苓保生湯)	11(0.7)
etc.	233(13.9)
Total	1672(100)

Table 6. The Age Distribution of Oriental Ob & Gy Patients Who Took Herbal Medicine

Age	Frequency(rate)
10-19	100(6.0)
20-29	346(20.7)
30-39	477(28.5)
40-49	385(23.0)
50-59	236(14.1)
60-69	68(4.1)
70-	60(3.6)
total	1672(100)

IV. 고찰

현대사회는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의료부분에서도 기술적인 도약이 함

께 이루어짐에 따라 삶의 질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만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 의료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질환의 경우 월경곤란, 산후풍, 갱년기 장애로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⁹⁾.

이에 본 저자는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OO한방병원 한방여성외과 외래 환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3년간 추이와 다빈도 질환, 치료처방 등을 조사하였으며 양방내원환자와 비교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더 효과적인 치료와 접근을 하여, 그 치료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년간 전체 내원 환자 수는 7141명으로 실환자수는 2348명이며 이중 신환자수는 1804명이었다. 총환자수 및 실환자수와 신환자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 환자가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30대, 40대, 20대, 50대의 순서로 많았으며 40대, 50대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Table 4을 보면 갱년기 질환의 환자의 비중이 증가해 40, 50대 환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환자 2348명의 환자에서 여성질환은 809례(34%), 비여성질환은 1539례(66%)였다. 3년간 한방여성의학과를 방문하는 총환자수, 초진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성질환의 실환자수는 2008년에 비해 2009년과 2010년에는 감소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2008년에는 여성질환의 비중이 높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오히려 운동기 질환의 비중이 더 높았다. 한방여성의학과이지만, 여성 질환 외 영역의 환자들이 66%로 많은데, 이는 한방여성의학과 특성상 그동안의 신뢰가 형성되어 여성 질환이 아님을 알고도 내원하는 환자들과 여성 질환을 의심하고 방문했으나 여성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다. 특히 본원의 경우 재초진일 경우 주소증에 관계없이 초진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여성 질환의 환자임에도 타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질환 환자의 비율이 낮을 수 있다. 한방여성의학과 의사는 여성 질환 외에도 빈도수가 높은 질환군의 준비와 치료에 대해 소홀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6개월간 내원한 한방신경정신과 환자

419명에 대해 분석한 김¹⁰⁾의 보고에는 한방신경정신과 환자의 비율이 80%, 비한방신경정신과 환자 비율이 20%였다. 1례에 불과하지만 김¹⁰⁾의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본원의 한방여성의학과에 내원하는 해당과의 환자의 비율이 34%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한방병원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전문 진료과 본원의 한방여성의학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본원의 조사가 1례에 불과하여 더 많은 병원의 전문 진료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방 전문 진료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전문진료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경정신계통 질환의 환자의 비율이 2008년 5.2%, 2009년 10.9%, 2010년 10.5%로 2008년보다 2009년 2배로 늘었으며 2010년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감정적이기 때문에 심신질환이나 신경증으로 고생하기 쉽다. 또한 현대사회의 많은 스트레스로 여성의 심신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원에는 신경정신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한방여성의학과를 찾는 경우가 있었다.

『한방여성의학』¹⁾을 바탕으로 한방여성의학과 질환을 분류하였을 때 한방여성의학의 병명의 빈도는 월경질환(34.7%), 산후신통(16.4%), 갱년기 증후군(14.5%), 산후허로(9.6%), 유산(7.0%), 징가(5.8%), 대하(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경질환, 산후신통, 갱년기 증후군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65.6%를 차지했다.

환자들의 여성의학 질환의 분류에서 3년간 월경부조의 경우 월경 후기가 46례

(5.7%)로 월경 선기20례(2.5%)보다 약 2배 많았다. 월경 후기의 경우 寒證인 경우가 많으며 선기의 경우 熱證인 경우가 많은데¹¹⁾ 최근 여성의 월경부조의 원인으로 寒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기성골반통(월경곤란증)의 경우 2008년 28례(9.8%), 2009년 35례(14.5%), 2010년 51례(18.0%)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월경곤란증 중 원발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질환이 없으므로 대증치료가 위주가 되고 있다.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서양의학적 치료로 사용되는 것은 대증요법, PG억제제의 투여, 내분비적 요법, 자궁수축억제제의 투여, 전방 천장장골 신경총 절제술이 있다¹¹⁾. 월경통이 가임기 여성의 50%이상에서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질환이지만 일반적인 서양의학적 치료로는 근본치료가 어렵다. 월경통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이며 한의학적 치료가 서양의학적인 대증치료가 아닌 근본치료가 가능한 만큼 치료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후풍의 경우 2008년 34례(11.9%), 2010년 32례(13.3%), 2010년 67례(23.7%)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산육기간에 대해 서양의학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유발된 자궁과 신체의 변화가 임신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¹²⁾. 따라서 효과적인 치유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의료적인 처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간주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정상분만이나 제왕절개술의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의료적인 처치가 없어도 정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¹³⁾. 한의학에서는 산모의 전신적 생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일정기간의 조리와 섭생상의 주의를 강조하며¹⁴⁾, 산후의 부조화와 불

균형으로 인하여 이후에 나타날 만성적인 기능장애 및 질병의 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¹⁵⁾.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모 연령별 출생 구성비¹⁶⁾를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한 결과, 2000년에는 25-29세 산모가 50.8%, 30-34세 산모가 28.4%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하여 2010년에는 30-34세 산모가 17.1% 증가하여 4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점차적으로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 등¹⁷⁾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후 증상 발생율이 높는데,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후 소모된 기혈이 회복되는 기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하여 邪氣가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산후풍 발생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산후조리를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후풍 및 산후허로를 호소하는 환자의 비중이 크며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갱년기 증후군의 경우 2008년 28례(9.8%), 2009년 32례(13.3%), 2010년 57례(20.0%)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양방에서는 갱년기 장애로 인한 자율신경의 장애 증상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섞어 복용한다. 그러나 호르몬 대체요법의 시행으로 자궁암 및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방암 위험이 높은 여성에게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¹⁸⁾. 최근 호르몬 요법 등의 부작용등이 많이 보고되면서 한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임상증상의 개선효과 이외

에도 정신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기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효능이 있으면서 부작용이 적다는 측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¹⁹⁾.

연령대 별 여성질환의 다빈도 상병은 10대는 월경통, 월경부조, 무월경 20대는 산후풍, 월경통, 유산, 30대는 산후풍, 월경통, 유산, 40대는 갱년기 질환, 자궁근종, 월경과다, 50대는 갱년기 질환, 자궁근종, 대하, 60대는 요실금, 질염, 대하의 순서로 나타나 연령대 별로 부인과 질환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양방병원을 내원하는 여성 질환 환자의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1위는 질염, 2위는 방광염, 3위는 정상임신관리, 4위는 복부 및 골반 통증, 5위는 칸디다증, 6위는 폐경기장애, 7위는 자궁경부염증, 8위는 무월경 및 희발월경, 9위는 자궁 및 질출혈 10위는 유방의 기타장애로 나타났다²⁰⁾.

한방과 양방의 외래 환자 분포에서 주로 내원하는 환자군이 다르며 양방의 경우 염증성 질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방여성의학과를 찾는 환자들 중 질환의 비중이 늘어나는 월경통, 갱년기 증후군, 산후풍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양방 내원 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도 한방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질염의 경우 내복·외용약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내복약의 다양한 부작용과 지속적인 재발문제, 외용약에 의한 국부적인 pH의 변화나, 질내 정상 세균총의 교란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 이상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²¹⁾. 최근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염증질환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방치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여성의학과 질환 환자에게 익기보혈탕이 349회, 귀비온담탕이 245회, 가미온담탕이 193회, 산후보중탕이 117회, 소복축어탕이 80회, 가미오적산이 78회, 온포중옥탕이 63회, 온포음이 56회, 익위승양탕이 43회, 자궁근종방이 38회, 가미분심기음이 29회 투여되었다. 익기보혈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귀비탕과 온담탕 계열의 처방 및 온포음이 다용되었다. 益氣補血, 健脾養心, 理氣和痰하는 익기보혈탕, 귀비탕 계열의 허증에 다용하는 처방들이 다용되었으며 이 처방들은 연령대 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내원하는 환자들이 통증이나 급증의 질환 보다 만성적 허증으로 치우친 것으로 생각된다. 溫裏, 溫陽하는 온포음계열의 처방은 10대~30대 월경부조 환자에게 약 98% 사용되었으며 이는 Table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寒으로 발생한 월경후기 환자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活血去瘀, 活血通經하는 소복축어탕, 활혈통경탕, 현부이경탕은 약 80%가 10대~30대의 젊은 환자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질환이라고 해서 어혈을 제거하거나 보혈에 대한 처방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虛證의 환자가 많이 내원함을 알 수 있다. 처방을 한 환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8.5%, 40대가 23.0%, 20대가 20.7%로 나타났으며 20대~40대가 72.2%를 차지하여 주로 젊은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전체 환자의 평균 내원 횟수가 약 3회였으나 한약 처방을 한 환자의 내원 횟수는 1.4회로 나타났다. 여성 질환 중 월경질환, 자궁근종 등의 경우 근

본치료를 위해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데, 조사 결과 충분한 치료기간을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치료의 지속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에 대한 진료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여성 질환 환자의 비율이 2008년을 제외하면 50%를 넘지 않아 3년간 여성 질환의 추이를 살피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분석이 처방과 내원일수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가 다소 한계가 있지만, 3년간 한방여성외과 내원 환자의 실태, 양방환자와의 비교, 치료처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방여성외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와 접근과 치료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에 한방여성외과에 내원한 환자 7141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3년간 내원환자수는 7141명으로 신환자수는 2348명이며, 2008년에는 실환자수가 51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837명으로 집계되었다.
2.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20~40대 환자가 60% 이상 차지하였다. 50대 환자의 비율은 2008년 9.1%에서 2009년

15.8%, 2010년 19.6%로 매년 증가했다.

3. 실환자 2348명의 환자 중에서 한방여성외과 질환은 809례(34%), 비한방여성외과 질환은 1539례(66%)였다.
4. 전체 환자의 병명의 빈도에 따르면 2008년에서 부인과질환(55.4%), 운동기 질환(19.2%), 비계질환(6%), 폐계질환(6%)였으며 2009년에는 운동기 질환(30.6), 부인과질환(28.5), 신경정신 질환(10.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 여성질환의 다빈도 상병은 10대는 월경통, 월경부조, 무월경 20대는 산후풍, 월경통, 유산, 30대는 산후풍, 월경통, 유산, 40대는 갱년기 질환, 자궁근종, 월경과다, 50대는 갱년기 질환, 자궁근종, 대하, 60대는 요실금, 질염, 대하의 순서로 나타났다.
5. 한방여성외과 질환 환자에게 익기보혈탕, 귀비온담탕, 가미온담탕이 다용되었으며, 산후보중탕, 소복축어탕, 가미오적산, 온포종옥탕, 온포음, 익외승양탕, 자궁근종방, 가미분심기음 순으로 투여되었다. 처방을 한 환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8.5%, 40대가 23.0%, 20대가 20.7%로 나타났으며 20대~40대가 72.2%를 차지하였다.

□ 투 고 일 : 2011년 10월 24일

□ 심 사 일 : 2011년 11월 01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07일

참고문헌

1.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서울:고려의학. 2007.

2. 장세란, 박영선, 김동철. 일개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 산후풍으로 내원한 환자 104례에 대한 실태 분석.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23(3):192-204.
3. 장희재 등. 한방병원에 내원한 여성 불임 환자의 실태 변화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23(3):184-91.
4. 위호선 등. 꽃마늘한방병원 한방부인과에 불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실태분석.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5;18(1):218-33.
5. 최진영 등.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106명 유방암 환자 기초자료 분석.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8;21(4):228-36.
6. 홍명주, 이인선. 동의대 부속한방병원 부인과 외래환자의 사상체질의학적 분석.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1):336-54.
7.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1995:205-10.
8. 한방부인과학 교육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 서울:정담. 2001.
9. 통계청. 한방 12대 분류별 급여현황 (진료비) 2004-2008. Available from URL: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350&tblId=TX_35001_A071&conn_path=I2&path=NSI
10. 김주원 등. 서울소재 동서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외래환자의 임상고찰.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2007;18(3):123-34.
11. 최유덕. 새임상산부인과학. 서울:고려의학. 2001:145-9.
12. 대한한부인과학회. 산과학 제3판. 서울:칼빈서적. 1997:6:117.
13. 황나미 등. 산후조리원 운영 및 이용자 관리현황과 제도화 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01:33-4.
14. 김시영, 이인선. 산후풍의 원인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산부인과학회지. 1993;6:117.
15. 유은광. 동서양의 만남 통합 산후간호. 서울:현문사. 2004:13, 26, 27, 40, 65.
16. 통계청. 행정구역(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997~2010. Available from: URL: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path=NSI
17. 이창훈 등. 산후 증상 발생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 2002;15(3):90-6.
18. 데이비드 R. Complete home medical guide. 서울:정한. 2003:36.
19. 구희준. Kupperman's index로 평가된 갱년기증후군 치험 2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8;21(3):257-68.
20. 통계청.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2009년-여자). Available from: URL: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350&tblId=DT_35001_A069&conn_path=I2&path=NSI
21. Hay PE. Therapy of bacterial vaginosis. J Antimicrob Chemother. 1998;41:6-9.